

노인 탁아소 '데이케어센터' 국내 첫선 된다

무의탁 노인 우선 1일 5천원, 한남동·장안동에 8월 개원 예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하루단위로 돌보는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가 빠르면 8월초 국내 처음 두곳에서 선을 뚫는다.

보사부 의뢰로 한국노인복지회와 은천노인상담소에서 시범 운영하게 될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우선 심신이 허약한 무의탁 노인과 간호할 가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가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을 잠시 맡아 돌보는 복지시설의 하나.

7~8월초 각각 문을 열 이들 센터는 한국노인복지회의 경우 용산구 한남동 1백평 공간에, 은천노인상담소는 동대문구 장안동 현 건물에 각종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며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주간'에만 가동할 예정이다. 시설이용 비용은



◀7~8월초 개원 될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비용은 1회 이용시 5천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상태이나 아직은 시설이용 기회가 적은 게 흠이다.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에 속하는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은 점심제공을 받고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노인은 1회 이용시 5천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상태이나 아직은 시설이용 기회가 적은 게 흠.

그러나 노인을 모시는 아들이나 며느리 등 보호가족이 질병, 사고, 출장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는 비록 주간보호일지라도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관심을 끄는 게 사실이다.

국내 처음 운영될 데이케어센터는 대략 50여명의 노인을 1일 기준으로 받되 이용횟수는 사흘에 한번꼴로 이용 가능하다. 또 이곳 운영프로그램에 따르면 16~17명의 보호노인을 세 그룹으로 나눠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생활보조원 등

4~5명의 전문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전문요원은 보호노인의 기능회복 훈련을 돕거나 샤워장에 설치된 목욕보조기구 등 설비를 이용, 노인을 보살피게 되며 앞으로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노인보호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을 보살피는 보조기구 대여 △보호방법 교육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

데이케어센터 개원을 준비중인 한국노인복지회 조기동 회장은 "노인보호를 가정에만 떠맡길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국가와 사회가 가정을 도와 노인을 보호하는 노력이 외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상태"라며 가정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법의 하나가 데이케어센터라고. 조 회장에 따르면 "이런 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센터를 통해서 노인 모시는 가족이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인을 모실 수 있도록 돕는 파급효과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나 복지시설은 '복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에의 관심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여실히 드러난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3년 전 이미 데이케어센터 설립 등 노인복지 10개년계획을 세워 7~8년 후인 2천년

까지 예정으로 전국에 1만개(현재 1천7백80개)의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진행중이다. 또 일본은 가정봉사원을 2천년까지 10만명으로, 단기보호시설을 현 7천6백74베드에서 5만베드로 늘려나갈 목표를 세워 놓은 상태.

반면 우리의 실정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로 올해 2곳의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열고 15일 이내 기준으로 보호를 하는 단기보호시설(short-care center) 역시 올 처음 대구·인천 등 전국 8개소에서 실비운영에 들어갈 예정일 뿐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 대상으로 말벗이 되고 세탁, 취사를 돕는 가정봉사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가정봉사원은 작년까지만 한국노인복지회, 중부·남부 노인복지회, 은천노인상담소에 서만 파견됐으나 올부터 전국 1백44개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노인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단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데이케어센터 1년 운영비예산이 겨우 1천2백만원 책정된 데서도 드러난다. 한국노인복지회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올초로 예정됐던 개원시기를 8월로 늦추고 시범 운영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이며 그나마 시설공간 마련은 패션디자이너 이광희씨의 패션쇼 후원금 3천만원과 한남동 사무실 무료대여로 가능했다.

노인복지관계자들은 "2천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 5%에서 13%로 급증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이에 걸맞는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해숙 기자〉